

■ 2022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발표지원) 하반기 시/시조A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2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발표지원) 하반기 시/시조A 분과
- 회의일시 : 2022. 12. 6(화) 10:00~12:00
- 회의장소 : 서울프린스호텔 회의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발표지원 사업은 역량이 뛰어난 우수 작가들의 집필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사업은 미발표 원고 7편을 선정하여 2백만원의 원고료를 지원하고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 작품 발표기회를 제공하여 문인들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행된다.

이번 하반기 사업 공모 결과 시 310건, 시조 34건을 합하여 총 344건이 접수되었다. 이 중 시/시조A 분과에서는 156건의 무기명 작품들을 심사하였다. 세 명의 심사위원이 사전 검토 후 결과를 수합하여 종합 심의를 진행하였다. 고른 점수를 받은 우수한 작품들이 많았지만 시/시조 장르의 특성상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었다. 현장에서 작품을 꼼꼼히 검토하며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이견 자체도 문학의 한 특성임을 실감하였다. 그러나 다른 목소리와 다양한 편차를 허용하는 것이 문학이기에 심의위원회는 숙고의 과정을 거쳐 흔쾌히 합의한 결과 시 13건, 시조 2건을 최종 선정하였다.

시적 발화의 미묘한 순간이 누구를 위한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확정하기 어렵지만 시적 개성과 실험성만큼이나 중요한 무엇인가가 작품에는 늘 요구된다. 작위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보여줄 때 더 깊이 공감하게 된다. 선부르게 규정하려고 할 때 단조로움과 감상성을 피하기 어렵다. 짧고 기계적인 행갈이가 서정시의 필수가 아니듯 장황하고 긴 진술이 스타일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상투성이나 관념성과 싸우며 자기 성찰의 지난한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심사위원들은 노력하였다. 이제 막 쓰여진 미발표작을 읽으며 그 작품들이 독자들과 만나는 활로를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심사는 고되지만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시적 새로움과 독창성이란 집요함의 다른 말일 것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했던 문인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 오늘의 결과가 내일 그대로일 리 없다. 글쓰기가 움직임이라면 고난 속에서 침묵을 깨고 지속적으로 활동해야 할 책무가 문인들에게는 늘 주어져 있을 것이다. 시인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격려하는 본 사업의 역할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시/시조A 분과 심의위원회 일동

■ 2022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발표지원) 하반기 시/시조B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2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발표지원) 하반기 시/시조B 분과
- 회의일시 : 2022. 12. 6(화) 13:30
- 회의장소 : 서울프린스호텔 회의실

본 아르코문학창작기금(발표지원) 사업은 문학 작가의 집필활동을 지원하고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행되는 사업이다. 미발표 시 7편을 응모 받아 최종적으로 선정되면 원고료 200만원을 지원하고 작품을 발표할 지면을 제공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번 하반기 공모에서는 시, 시조를 합쳐 총 344건이 접수되었다. 시/시조B 분과에서는 결격을 제외한 156건의 신청 건을 심사하였다. 심의는 세 명의 위원들이 각자 사전 전수 검토하고 예비적으로 평가해온 결과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심의의 기준은 '미발표 작품의 문학적 수준' 100%로 이루어졌다. 세부적으로는 1) 표현의 참신성, 2) 작품의 완성도, 3) 언어의 심미성 및 정밀성, 4) 발상과 형상의 창의성, 5) 독자와의 소통성 등을 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세 명 심의위원들의 평가과정에는 각기 다른 예술적 성향 및 심미적 기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별로 '의식 및 진술의 실험성', '좋은 시가 갖는 사물성 및 세부의 구체성'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개인적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심의위원은 그간의 예비적 심의를 총합할 때 공정한 결과가 도출되리라는 믿음을 버리지 못했다. 그러한 믿음 속에서 세 명의 심의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총합해 결과를 도출하였고, 작품을 꼼꼼히 재검토하면서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었다. 그 결과 B조의 심의위원들은 최종적으로 시 분야에서 156명의 작품 중 13명, 시조 분야에서 16명의 작품 중 2명의 것을 선정하였다.

세 명의 B조 심의위원이 최종적으로 선정한 시 분야 13명, 시조 분야 2명의 작품은 심미적으로 모두 일정한 경지에 이르러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발표지원 형식에 따라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을 받는 시인들에게는 축복을 드리며 받지 못하는 시인들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

시/시조B 분과 심의위원회 일동

■ 2022년도 아코문학창작기금(발표지원) 하반기 소설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2년 아코문학창작기금(발표지원) 하반기 소설 분과
- 회의일시 : 2022. 12. 5(월) 14:00~15:30
- 회의장소 : 서울프린스호텔 회의실

2022년 아코문학창작기금(발표지원) 심의 사업의 목적은 문학적 역량이 뛰어난 우수 작가의 집필 활동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작품 발표 기회 확대 및 작품집 발간까지 연계함으로써 문학 작가의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 한국 문학의 대표 작품 확대에 기여하는 것이다.

하반기 소설 분과 지원심의에는 중단편소설 167편, 장편소설 20건이 응모되었다. 심의 기준은 전적으로 응모작의 문학적 완성도를 근거로 하였으며, 심의 과정은 세 명의 심의위원이 각자 심사한 결과를 심의회의에서 공유하고 토론 및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 작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응모작들이 천착하고 있는 주제는 경향을 규정하기 어려울 만큼 다채로웠다. 부동산 투기 광풍 이면의 빈부 격차를 다룬 세태소설,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립 및 공존을 모티브로 삼은 SF 소설, 관계의 허상에 집중하여 인간 존재의 의미를 파헤치는 실존주의적 소설, 택배 기사의 과로 등 노동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사실주의 소설, 소설가를 화자로 삼고 창작 과정의 안팎을 보여주는 메타픽션, 그 외에도 이른바 '착한 소설'로 명명되는 권선징악 구도의 서사, 가족 간 갈등 문제, 취업 문제, 왕따 문제 등 시의성 있는 주제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구현되었다. 장편소설의 경우는 실존 인물의 일대기나 특정 전쟁 등 역사적 사료에 허구를 가미한 역사 소설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심의 대상이 이미 등단한 작가의 미발표 신작인 만큼 거의 모든 응모작이 일정 수준 이상의 완성도를 보이는데다 각각의 특징이 뚜렷하여, 심의는 옥석이 아니라 옥옥 중에서 더 아름다운 옥을 가려내는 성격을 띠었다. 그 과정이 결코 수월할 리 없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이렇듯 문학성이 탁월한 작품들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로 짐작되는 한국 작가들의 문학적 역량과 열정이, 그로써 증명되는 한국 문학의 미래가 반갑고 미덥기도 했다.

심사위원들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한 평가 기준은 문장이 정확하고 유려하면서도 개성 있는가, 그러한 문장을 통해 작품 속에서 주제 의식이 짙게 구현되었는가, 그것이 작품의 구성과 미학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었는가, 이상의 세 가지였다. 엄밀히 말해 이것들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조항들이기도 하다. 소설은 사유의 집인 동시에 언어의 집이기도 하므로 정확하고 유려한 문장은 기본이지만, 그것이 작가의 사유를 오롯이 담아내지 못한다면 단순한 문장력의 과시에만 그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작품의 구성이 빈틈없고 미적으로 세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작품의 주제 의식과 긴밀히 맞물려 중심 서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그 역시 보기에만 좋은 허울에 불과할 것이다.

그 외에도 역사 소설 및 SF 소설에 대해 한 말씀 덧붙이고 싶다. 역사 소설의 경우에는 작품 속에 그때 그곳의 이야기가 왜 지금 이곳에 재등장할 수밖에 없는지 그 필연성에 대한 발견이 있어야 한다. 방대한 역사적 사료와 치밀한 연구와 잘 짜인 스토리텔링이 뒷받침하고 있더라도 시대를 초월한 문제의식 및 생생한 현재성이 없다면 옛 이야기의 반복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SF 소설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것의 본령은 미래에 대한 참예한 과학적 상상력의 전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현재를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는 데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기준으로 중단편소설 24편, 장편소설 3편을 선정했다. 정해진 선정 비율 때문에 논의를 거듭했고 그 과정에서 결국 손에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뛰어난 작품들이 적지 않다. 그것이 못내 아쉽고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심의위원 모두 최대한 공정하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애썼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한국 문학의 무한한 역량과 가능성을 보여주신 응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소설 분과 심의위원회 일동

■ 2022년도 아코문학창작기금(발표지원) 하반기 아동청소년문학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2년 아코문학창작기금(발표지원) 하반기 아동청소년문학 분과
- 회의일시 : 2022. 12. 5(월) 10:00~12:00
- 회의장소 : 서울프린스호텔 회의실

아코문학창작기금(발표지원) 공모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되어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하며, 선정된 작가들에게는 미발표 원고에 대해 지원금과 온라인 발표 기회를 지원한다. 등단한 작가라 할지라도 발표 지면을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과 발표를 연계하는 사업은 많은 작가들에게 반갑고 소중한 기회로 여겨졌을 것이다. 또한 독자들에게도 보다 의미 있는 문학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

아동청소년문학 부문 심의에서는 동시/중단편동화/장편동화 분야별로 공모하고 심의하였다. 세 분야 합쳐서 총 184건의 신청이 있었고 결격 건수를 제외한 162편을 대상으로 세 명의 심의위원이 개별 채점을 한 뒤 심의회의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였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아동문학의 존재 이유와 사회적 의미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며 어린이 독자에게 적절하고 유용한 문학 작품인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어린이의 현실과 일상을 구체적으로 그리되 아동문학 특유의 낙관과 전망을 담는 작품들을 찾고자 하였으며, 지나치게 단순하고 가벼운 내용과 형식으로 문학의 품위를 담아내지 못하는 작품은 제외하였다. 어린이 독자에 대한 존중은 기본이다. 동화의 경우 독자의 연령, 리얼리즘·SF·판타지 등 하위 장르 설정에 따라 장르 문법을 제대로 구사하고 있는지도 기준으로 삼았다.

동시 부문에서는 7편씩 제출한 동시를 대상으로 심의하였고 총 10건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동시들은 참신한 발상과 주제의식, 어린이의 현실과 일상에 대한 애정어린 관찰력, 동시에 걸맞는 소재나 장면을 발견해내는 시적 재치 등이 돋보였다. 어린이의 한정된 경험과 시야 안에서 늘상 새로운 소재와 표현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은데 동시 읽는 즐거움을 주는 작품들이 여럿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7편의 동시가 고르게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경우는 드물었다. 한두 편의 동시가 깊은 인상을 주는 반면 나머지 작품들이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경우는 고심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7편의 제출 동시가 작가의 문학적 성취를 가늠할 수 있도록 통일된 주제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는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중단편 동화에서도 2편씩 제출한 작품들을 심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10건을 선정하였다. 유년동화, 고학년동화, 청소년소설을 망라하여 총 68건이 심의 대상이었고, 최종적으로 여러 장르의 작품들이 고르게 선정되었다. 어린이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작품부터 아동폭력이나 차별 등 사회적 이슈를 다룬 작품, SF 서사와 판타지를 동원하여 현실의 제약을 뛰어넘어 사안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작품들이 있었다. 다소 작위적인 상황 설정이나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계몽 의지 등 아쉬운 대목이 없지 않았으나 독창적인 이야기를 찾아내고 자연스러운 장면 서술과 문장 표현으로 완결성을 지닌 작품들이 선정되었다.

장편동화에서는 총 39편의 신청작들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였고 최종 5편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장편이니만큼 서사와 캐릭터가 보다 중요한 기준이었으며, 인물과 사건을 효과적으로 창조해내고 이야기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있는 작품들을 찾고자 하였다. 선정작들은 판타지, 역사, 동물 등 다양한 소재와 장르를 지닌 작품들이었으며 저마다 안정적인 서사와 매력적인 주인공, 자연스러운 장면 묘사 등이 돋보였다. 어린이 독자들이 반가워할 만한 이야기의 재미도 중요한 기준이었다. 선정작들은 개인의 삶과 환경에 대한 관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등 주제의식 면에서도 좋은 성취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동문학의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오늘날 현대 아동문학은 어린이의 실제 삶과 경험을 존중하며 사회가 어린이의 주체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어린이 청소년 인물들의 연애를 다루는 데 있어, 청소년과 성인의 연애를 소재로 하거나 여자 어린이를 성적 대상화하는 것을 과감하고 솔직한 세대의 풍속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정되지 못한 작품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둔다.

심의위원들은 오래 고민하고 논의하며 작품들을 선정하였지만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작가들

로서는 아쉬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가 개개인이 가졌던 포부와 문학에 대한 열정은 우위를 가릴 수 없으리라. 모두가 아동청소년문학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 데 함께할 것으로 믿는다.

아동청소년문학 분과 심의위원회 일동

■ 2022년도 아르크문학창작기금(발표지원) 하반기 수필/평론/희곡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2년 아르크문학창작기금(발표지원) 하반기 수필/평론/희곡 분과
- 회의일시 : 2022. 12. 4(일) 10:00~12:00
- 회의장소 : 서울 대학로 문학지원부 사무실

수필, 평론, 희곡을 함께 살핀 이번 심의는 문학 창작을 향한 투고자들의 뜨거운 열정을 새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사업은 외부에 공개된 적 없는 미발표 작품을 대상으로 복수의 심의위원이 작품성을 기준으로 선정작을 선별하여, 선정된 작가에게는 개인당 2백만원 정액을 지원하고 더불어 온라인 매체에 작품을 발표할 기회를 마련해주는 제도입니다. 작품을 발표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작가들의 집필 의욕을 고취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응모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하여 무기명으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작품의 미적 성취도가 유일한 선정 기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필은 작가의 개성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장르인 만큼 이번 심사에서도 다양한 소재와 형식을 취한 흥미로운 작품들을 다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장면들을 남다르게 포착하는 능력과 그러한 감상을 특색있는 문장으로 드러내는 능력이 인상적인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선정작이 정해졌습니다.

다만 수필이라는 문학 장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투고작들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일과를 단순히 나열하는 경우, 문장과 구성에 대한 큰 고민 없이 인상적인 사건만을 기술하는 경우 등은 공통적으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소재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공들여 쓴 문장임을 다시 한번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론 분야의 글들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의미있는 평론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작품을 성실히 따라 읽으며 작품을 꼼꼼하게 분석해야 함은 물론 최근의 문단에서 어떤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작품을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작품을 풍부하게 읽기 위해 이론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객이 전도된 듯한 인상을 주는 경우, 평론의 대상이 되는 작품의 선정과 관련하여 시의성이 고려되지 못한 경우 등은 선정작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심의에서는 평론의 기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론의 새로운 형식에 대해서도 열심히 고민하는 글을 더 많이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희곡은 무대에서 극으로 상연될 것을 전제로 창작되는 장르이나, 그 자체로도 충분한 문학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을 모두 고려하고자 고심하였습니다. 등장인물이 적고 시공간이 협소하게 설정된 작품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제한된 설정에 비해 대사의 긴장이 다소 떨어지는 작품들이 다수 보여 아쉬웠습니다. 기존의 작품이나 역사적 상황을 차용할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아쉬운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대사를 통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작품들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심의 결과 수필 분야는 56건의 심의대상 중 10건, 평론 분야는 5건의 심의대상 중 1건, 희곡 분야는 35건의 심의대상 중 7건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작가께 진심 어린 축하의 인사를 건넵니다. 작가들의 공들인 문장이 독자들에게 온전히 가닿기를 바랍니다. 이번 심의에서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작품들도 눈 밝은 독자와 만날 기회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수필/평론/희곡 분과 심의위원회 일동